

# Living the Lotus 6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5  
VOL. 237



2025 Northern California Cherry Blossom Festival  
Risho Kosei-kai Members in North America  
Participate in the Grand Parade in San Francisco



Living the Lotus  
Vol. 237 (June 2025)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문미디어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mailto: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넛교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범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범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범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 '효도(孝道)'란 무엇인가?

니와노 니치코  
입정교성회 회장



## 사람을 미워하지도 다투지도 않고

「효도를 하고 싶을 때는 이미 부모는 없다. 그렇다고 돌무덤에 이불을 덮을 수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효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후회하는 심정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그래, 맞아'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돌무덤에 이불을 덮을 수 없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에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웅장한 생명의 역사 속에서 무엇 하나 빠뜨리는 일없이 맺어진 연(緣), 그리고 생명의 배턴 릴레이에 의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효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선조님을 통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주시하고, 미래를 향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효도'에서 '효(孝)'라는 글자는 '늙을 노(老)'와 '아들 자(子)'가 조합된 글자로, 이것은 연장자에서 젊은 사람으로의 '연속'이 끊어지지 않고, 소중한 것이 계승되어 하나로 연결되는 '통일(統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효도가 부모님께 효양(孝養)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음은 틀림없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논어(論語)>에는 '효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공자(孔子)가 '부모유기질 지우(父母唯其疾之憂: 부모는 매사 자식의 건강만을 걱정하니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라)'라고 알기 쉽게 답을 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또한 중요한 점입니다. 다만 이 구절의 '질(疾)'이라는 글자의 뜻을 찾아보면 '질'에는 '병(病)'이외에도 '미워하다, 시기하다, 원망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는데, 야스오카 마사히로(安岡正篤:1898~1983)선생에 따르면, '질은 다툼과 같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은 물론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욕(我欲)이나 다툼으로 인한 단절이 없도록 몸을 삼가는 것, 그것이 평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효도의 하나일 것입니다.

## 불효라는 살생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치수(治水)를 잘 하여 사람들에게 보살로서 공경을 받았던 스님 행기(行基:668~749)의 시에 ‘산새가 꾸룩꾸룩 우는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는 심정이 가득하여 산새의 울음소리조차도 다정한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로 들린다……, 그 애절한 심정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가끔 이러한 감상에 젖어 드는 한편으로, 자칫 낱아 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외모를 한탄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신 생명에 대해 감사를 하지 못하는 불효로서, 조동종(曹洞宗)의 요고 스이간(余語翠巖:1912~1996) 스님은 이를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범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요고 스님은 ‘천지에 가득한 생명’을 그대로 사는 우리들, 즉 불성 그 자체인 우리들의 인생은 차별없이 모두 다 훌륭하며, 가치없는 인생도, 의미없는 존재도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런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것은, 근원의 생명을 보살피지 않는 살생, 결국 재가의 불교도가 지켜야 할 오계(五戒)의 하나인 불살생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노와 불만이라는 자아(自我)를 드러내는 마음을 가능한한 억제하여 남과 다투지 않고, 불성 그 자체의 자신을 믿으며 모든 것을 부처(진리)의 작용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효도가 됩니다.

또 인간을 포함한 대자연의 영위는 쉼 없는 진보·향상과 창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장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사람을 심는다’는 것도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것도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생명의 연쇄를 향한 효도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되는 것은 ‘충서(忠恕)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용서한다, 받아들인다, 진심을 다한다, 배려한다 — 이러한 것들을 매일 실천하는 속에 진정으로 소중한 대조화 정신의 확대와 계승이 있는 것입니다.

(『교성』 2025년6월호)



##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힘이 되고 싶다

마다구마 · 구루고 몽골 · 에르테네트 법좌

이 체험 설법은 2025년3월15일, 대성당에서 열린 석가모니불 법회날(포살의 날) 식전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1958년, 10명 형제자매의 장녀로서 부모님께서는 저를 낳아 주셨습니다. 역사에서 일하셨던 부모님의 일 관계로, 저희 집은 지방의 역을 돌면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 대신에 동생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에 쫓기었습니다만, 그렇게 복적이든 가정에서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들이 많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와 관련된 일이 하고 싶었던 저는, 장래에는 학교 선생님이거나 소아과 의사가 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저의 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는데, 중병을 앓고 있어서 45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87세입니다만, 지금도 당신의 자녀나 손주들에게 몽골의 민족의상을 만들어 줄 만큼 건강합니다. 재작년, 어머니의 85세 생일을 축하했을 때, 저희들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2명에서 시작된 108명의 대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1982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국립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꿈이었던 소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만나 1985년에는 첫째딸을, 1989년에는 둘째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 이윽고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 후, 저는 남편으로부터



대성당에서 설법을 하는 마다구마씨



가족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1991년쯤, 중간 오른쪽 끝이 마다구마씨)

도망치듯 이혼하여, 아이를 데리고 몽골에서 두번째 대도시인 에르테네트시로 옮기고, 그곳의 지역 의료 센터의 의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새로운 만남을 가지며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냥하고 남을 잘 돌봐 주는 사람으로, 두 아이에게 있어서도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평온한 나날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지인이 부동산 사업 이야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빛을 내서 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 사업은 전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윽고 지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아연실색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인 2005년에, 남편이

# Spiritual Journey

병으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아이의 육아를 하면서 빛을 갠다는 어려움을, 저는 혼자서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행복의 절경에서 한순간에 골짜기 밑바닥으로 밀려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나중에 저의 입회 어머니가 될 엔후토야씨로부터 몽골 입정교성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몽골어로 독경공양을 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부모효도를 할 것,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단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 언젠가는 찾아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06년, 실제로 울란바토르의 몽골 입정교성회를 찾아가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은 아파트의 한 방에서, 현재 지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조리구마씨를 비롯하여 5명의 여성이 몽골어로 독경공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독경공양에 참가했는데, 무량의경 십공덕품 제3의 ‘열 가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열 가지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의 저는 빛 갠 일에 쫓겨서 육아도 여의치 않아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저라도 ‘이런 성스러운 경전을 매일 독송한다면 마음이 맑아지는구나’ 또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은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부터 이 경전을 계속 읽어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독경 후의 법좌에서는, 에르데네트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 경전을 독송하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개월 후, 조리구마 지부장님을 비롯한 5명의 회원들이, 220km 떨어진 에르데네트까지 포교를 하러 와 주셨습니다. 제 직장의 한 방에서, 근처에 사는 사람들 6명과 그 아이들 20명이 함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후, 저희 집에 총계명을 권청했고, 안치 공양에는 함께 가르침을 들은 인연이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도 참가해 주었습니다. 조리구마 지부장님께서 “21일간 빠지지 않고 독경공양을 드리면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매일 밤 7시부터 다 함께 독경공양을 드렸습니다. 공양을 하면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인상에 남아, 다 함께 열심히 독경공양을 드렸습니다. 그것



2018년, 에르데네트 법좌 입불식 참가자와 함께 (앞 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마다구마씨)

은 저희들의 마음을 가르침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만, 새로운 참가자가 계속해서 추가되었고, 마지막 참가자가 21일간의 독경공양을 끝낸 것은 3개월 후였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맑아지면서, 법좌에서는 ‘이혼 직전이었던 부부가 화해했다’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다’ 는 등, 생활 속에서 일어난 기쁜 변화와 공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을 거점으로 한 에르데네트 법좌의 활동은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독경공양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공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했던 첫 남편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 덕분에 저와 남편에 대해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만나야 했기에 만났었다고,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남편과 만나기 전에는 저도 주위 사람들을 상처 주고 슬프게 하는 행동을 해 왔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저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만나게 해 주셨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받아들이면, 긴 세월 계속 저에게 미움을 받아온 남편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며, 미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각이 바뀔으로써 마음까지 바뀐다는 것을 깊이 실감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주임 역할을 배명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에르데네트 회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시의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의 일실을 임차해서 법좌소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법좌소로 향하여, 신자분들과 독경공양을 드리고, 가르침을 함께 배웠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입회시키며, 승가의 고리는 지방까지도 넓혀졌습니다. 지금 입회 자식은 240명입니다. 교성회와 만나, 저의 인생은 일변하였습니다. 독경공양을 드리고, 가르침을 배우면 배우수록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집에서 독경공양에 참가한 사람들과(마지막 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마다구마씨)

# Spiritual Journey



2018년, 에르테네트 법좌 입불식 후에(왼쪽에서부터 사 이토 전도부장, 마다구마씨, 히로세국제전도부 차장)

저를 향상시켜 주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라고 받아들 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에 이르기까지는 한 가지 더 시련 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4년, 손주가 태어 나 저는 손주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울란바토르 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서, 에르테네트 법좌소의 일을 입회 자식인 A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법좌소를 찾아가보니 그 A씨가 저 대신 주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말도 없이 저도 모 르는 새에 정해져 있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 다. 법좌소 발족때부터 열심히 해 왔는데, 어째서 나 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었는지, 섭섭하게 느껴졌습니 다. 몹시 침울 해지며 가르침에 대한 마음도 식어버 리며, 독경공양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3년정도 계속되며, 마음은 항상 불안 정하고 슬픈 마음이 맑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회경을 독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 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 제 마음속에 ‘에르테네트 법좌소를 만 든 것은 나다’ 라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 닫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제 고(古)의 원인은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 ‘올바른 것은 나이고, 틀린 것은 상대방이다’ 라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 있 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열 가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열 가지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의 경문처럼, 이 고통은 교만한 나를 교화시켜 주시는 부처님의 큰 자비였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 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주선을 깨달았을 때, 몸 전체에서 기쁨을 실감하고 모든 것이 빛나게 보였습니다. 바로 법좌소를 참배하여, 법좌에서 잘못 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던 제 자신을 참회하였습니

다. 그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받아 주신 신자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에르테네트 법좌소는 정식으로 본부에 등록 되어, 당시의 사이토 다카시 국제전도부장님과 히로 세 국제전도부 차장님께서 에르테네트 법좌소에 오서 서, 본존님 입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식전 후 히로 세 차장님께서, 한 발 내딛어서 교사자격을 배수 받 을 수 있도록 격려와 권유를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 게 제 역할에 매진해 나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 와 같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참회를 하자, 부처님께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2020년 저는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단 결과를 들어도 신기하게도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 다. 간의 4곳에 암이 발견되어, 간의 대부분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승가 여러분들이 한달동안 삼부경을 독송하며 염 해 주셨습니다. 승가의 따뜻함에 격려 받아, 덕분에 ‘이 곤경을 극복해서 오래 살아서 앞으로도 많은 사 람들에게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싶다’ 고 강하게 바라 게 되었습니다. 2021년과 2023년에도 암이 재발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가르침 덕분에 평온하 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또다시 재발하여 수 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무섭지 않았으며,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 가르침과 만나지 않았다면 저 는 의사로서 수술과 치료를 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암을 악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까지의 고통 덕분에 모든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 도 많은 사람들의 힘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 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정체되어 버린 에르테 네트 법좌소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도록, 모 두가 건강하고 평온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포교에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8년, 교사수여식에 참가한 몽골 배수자(왼쪽에서 두 번째가 마다구마씨)



## 싫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 「법(法)의 자식」을 키운다

입정교성회 니와노 니치코(庭野日敬)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언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왔는데 자신이 좀 더 크게 향상하고 직장도 사회도 원활하게 진보향상하기 위해서는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생각이 필요해집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대한다, 봉사한다, 도움을 준다고 하는 행동을 통하여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뭔가를 키우는 약간의 마음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친절하게 봉사하고 서로가 도움을 주면서 서로 성장해 가면 그 작용이 메아리를 쳐서 직장도 사회도 밝고 따뜻하게 향상 진보해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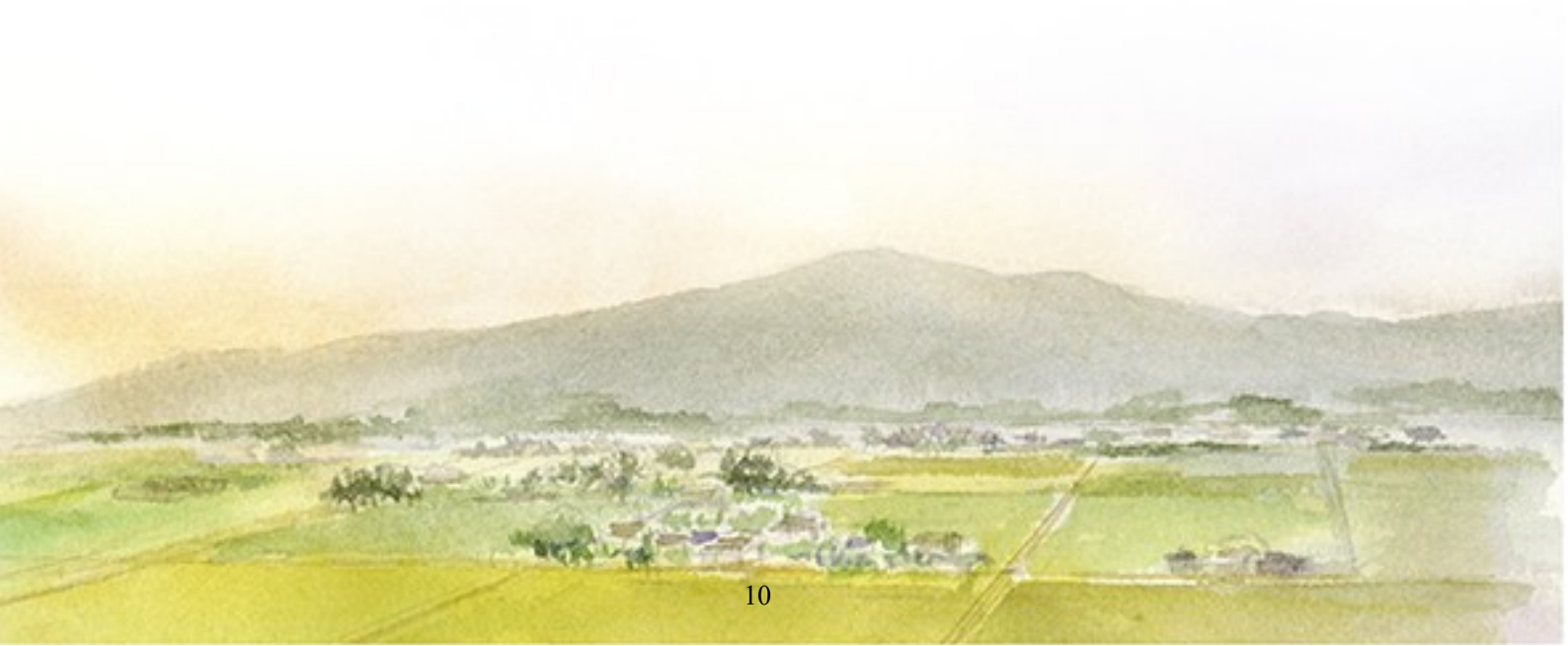
불교에서 「보시」를 보살행의 첫 번째로 거론하는 것도, 입정교성회에서 「한사람이 한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도 스스로 자진하여 움직이는 적극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은 즉 「법의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식을 키우는 일에 마음을 씁니다. 육아 책을 보기도 하고 경험자에게 조언도 들어가면서 아이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노력합니다. 「입회자식」을 키우는 것도 같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외면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체험과 시행착오를 극복해나가는 곳에 서로의 향상이 있으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서로 절차탁마하는 관계라고 주의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고마



## 보리의 싹을 트게 함이니라

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싫은 사람이 좋아진다」고 하는 명제도 자기 자신을 반성하여 내가 바뀌고,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유화한 마음을 지닌다고 하는 세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에게 헌신한다고 하는 적극성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니와노 닛쿄 법화집 『보리의 싹을 트게 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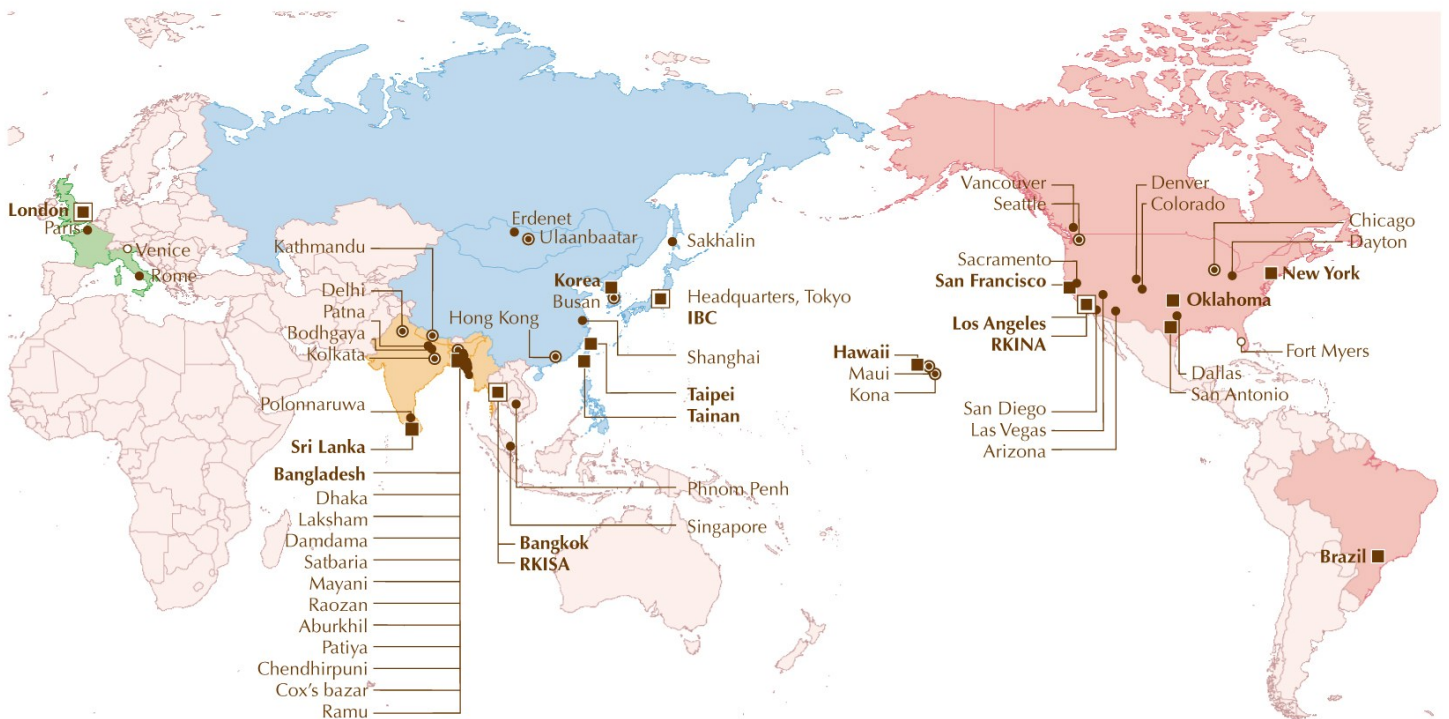


#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mailto: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